

# 거친 나이프로 그린 고향의 바다... 김혜선 개인전

기획전 '고향 가는 길'  
25일부터 은암미술관서  
유년의 기억·정서 담아  
회화·미디어 등 60여점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며 바다가 연상되는 시기, 각양각색의 바닷가 풍경이 미술관을 가득 메운다.

유년 시절 부친의 고향 전라남도 강진에서 봐 왔던 바다가 준 영감을 잊지 못한 작가 김혜선은 이를 마침내 작품화해 내며 광주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광역시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김혜선 작가 기획초대전 '고향 가는 길'이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그간 작업한 그림의 정체성을 찾아 추억들을 소환하는 사진 드로잉 작품 10점을 포함해 '아버지'의 바다를 상징하는 유화 작품 20여점, '나'의 바다를 상징하는 유화 작품 30여점 등 총 60여점이 전시된다.

회화와 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전시 현장에는 김 작가의 뿌리인 전라도에 대한 따뜻한, 아픈, 그리움이 색과 질감으로 표현됐다.

김 작가는 그간 거친 바다를 주로 그려왔다. 실재하는 바다도 아니며 육안의 망막에 포착된 시각적 형태의 바다도 아니다. 그 바다는 심안(心眼)만이 다다를 수 있는 작가의 마음속 심상(心象)으로서의 바다다.

작가는 이를 대형 나이프 기법을 사용해 물감마다 가지고 있는 농도 차이로 생기는 다양한 질감으로 표현했다.

그가 펼쳐낸 작업은 '풍경'과 '비풍경' 사이를 그리는 나이프의 시선으로 다가온다. 붓이 아닌 나이프 터치로 구현된 화면 위 두터운 물감은 전통적인 풍경화나 산수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완성된 회화는 '대상'의 재현이 아닌, '물자체'에 가까운 비대상성을 지향한다. 섬세한 묘사 도구인 붓 대신, 건축용 대형 나이프를 사용해 물감의 물성을 살리고 격정적인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 속 풍경은 생생하지만 실제로는 상상과 기억, 감각이 교차된 내면의 풍경이다.

더불어 유화 물감을 활용해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한껏 드러낸 '장주지몽' 시리즈는 두텁고 생동하는 물감층으로 인해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작가가 유년 시



김혜선 작가가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은암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아버지의 바다를 거닐었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절 바라본 일상의 남도 바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는 고향으로 인식되고 꿈이 된 것을 투영한다.

전시장 1층이 어두운 청색을 바탕으로 한 회화작들로 구성됐다면, 전시장 2층은

'자유 바다'라는 테마로 강렬한 색보다는 편안한 질감·색감을 명상하듯 펼쳐낸 작품들로 채워졌다. "물감의 성질을 꿰뚫어 보는 게 강점"이라고 자신한 작가의 설명대로 작품마다 특색이 돋보인다.

"언젠가 고향에서 개인전을 하리라 마음먹었었어요. 은암미술관에서의 전시가 확정되면서 명절에 고향 가는 설렘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김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1987년 관훈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작가는 40여년을 즐기게 작업해 왔다. 김 작가는 광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는 졸업 후 서울에 거주하며 인전에서 교직생활 및 작가 활동을 겸직했다. 그간 몇 차례 광주에서 단체전을 가졌지만, 개인전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작품세계를 선보이겠다는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고 이번 은암미술관의 초대가 그 결실로 다가온 셈이다.

김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꿈속의 남도 바다를 감상하며 관람객들이 '긍정적' 장주지몽(莊周之夢)에 빠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시 '고향 가는 길'의 오프닝 행사는 개막일인 25일 오후 5시에 은암미술관에서 진행된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광주문화재단,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6건 선정

'광역-중앙 연계 사업' 일환  
"예술 창작 성장 발판 마련"

광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광주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문학(2건), 시각예술(1건), 공연예술(3건) 분야에서 총 6건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건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지원한 4개의 집중지원사업 및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전문예술인 분야(문학·시각예술) 중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별됐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공모 대상으로 지난 3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광역문화재단이 발굴·지원한 예술작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속 지원하는 '지역-중앙 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예술단체와 개인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앙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이번 선정 결과에 광주 예술 창작의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는 △작품 및 활동 보완 △수월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비평·홍보·작품 및 단체운영(회계·정산, 자원조성 등) 전문가 자문 △타지역 공연장 및 예술단체 교류 활동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광주 예술인들이 전국 단위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며, 지역 예술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 지역 영상문화의 중심 '광주독립영화제' 열린다

26~29일, 광주극장·독립영화관서

지역 영상문화의 중심인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6~29일 나흘간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2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올해 14회를 맞은 광주독립영화제는 '비타민 F(ilm)'을 주제로 열린다. 삶에 지친 관객에게 영화가 작은 활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독립영화만의 생기와 감수성을 통해 일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극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한 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회가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고릴라펀드 후원 시나리오 피칭 △지역영화 네트워크 포럼 △광주영화인의 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

련돼 지역 영화문화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다. 장애를 지닌 청년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해당 작품은 간절한 몸짓과 반짝이는 눈빛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개막작은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돼 음성해설과 자막을 통해 시청각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영화의 감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막작은 전석 무료(선착순)로 모든 시민이 별도의 예매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광주극장이 영사기, 스크린, 음향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이후 처음으로 사영하는 영화가 개막작이다.

올해 광주독립영화제는 총 26편의 영

화를 상영한다. 광주지역 창작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로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생생하게 담아낸 '메이드 인 광주전', 새로운 시선과 감각을 지닌 젊은 감독들의 작품을 통해 광주 영화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광주 신진 감독전', 오랜 시간 지역 영상 생태계를 지켜온 송원재 감독의 창작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송원재 감독전', 캐나다 퀘벡 지역의 작품을 선보이는 '퀘벡 내셔널데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상영작이 끝난 뒤에는 '감독과의 대화' 행사도 열려 영화 제작 배경과 창작 의도 등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개막작을 제외한 상영작 예매는 광주독립영화관 누리집과 예매 플랫폼 디트릭스를 통해 가능하다.

정성아 기자

## 가야금 병창 이영애, 제자들과 한무대 선다

28일 동구 전통문화관... 수궁가 등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토요일 상설공연 12회차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의 맥을 이으며, 그 계보와 전통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무대다. 특히 가야금병창 보유자 이영애 선생과 전수자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전통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 가야금병창의 계보를 살펴보면, 조선 말기 가야금산조 창시자 김창조에게 산조와 병창을 전수받은 오수관 명창이 있다. 그의 장남 오태석은 송만갑 국창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김창조에게 산조와 병창을 익혀 당대 최고 수준의 가야금병창 예인으로 평가받는다.

이영애 보유자는 원광대학교 국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부문 장원, 제12회 우륵 가야금병창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가야금병창 전승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무대는 이영애 보유자의 '단가'(녹음방초)와 수궁가 중 '탑상을 탕탕' 대목으로 시작한다. 이어 '화사자 불러들이는데', '여봐라 주부야', '고고천변', '상좌 다툼 허는디 가자 어서가', '제기를 불고, 광대장자',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등이 연주된다.

아울러 이영애 보유자의 전수 장학생, 전수자, 제자들이 함께 꾸미며, 융복합 앙상블 '부나비즈'의 김민철 대표가 고수로 함께 공연 무대에 오른다.

전통문화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제



가야금병창 이영애. 광주문화재단 제공

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토요일 전통문화관과 회경루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회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박찬 기자